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서슬비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지도교수 조 동 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서 슬 비

서슬비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 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A Study on Modern Poetry Education of Image by Painting Method

Seul Bi Seo

Korea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se days, image education is used to figure out the true meaning of a poem. However, until now, the image training of poems have been taught in the established standards, and are ending with only the basic knowledge of the teacher. This type of education, the leader can realize the image of the poem through their imagination and it can be of disturbance when interacting with the poem. That is why poetry class taught through image education, needs various alternative plans. When you see the ones being experimented on these days, especially, 'mutual text' or 'contrasting literature' and more, you can see that education needs methodological use. In this manuscript, I have connected the distinct image and paintings. In this manuscript, I would like to find the appropriately used education plan for painting in the modern poetry guidance. The manuscript's experiment is similar to the following. First, on page 2, I will reveal what kind of connection image poetry and painting has with the artistic experience of the life symbolized by modern poems and mutual text. Not only that but through paintings, the final objective that modern image education pursuits is presented. On page three, the modern image education method theory is designed on different levels. Before class, professor will redesign by selecting a painting, then having the students think of images while looking at it, organize images in modern poems, compare paintings and modern poems with images and create poems with images. Page four will show how to actually apply modern poem education in class by the design on page 3. Again, with the background of have the students who have taken that class fill out a survey, we could analyze the result and evaluate the class. Through the enthusiastic answers on the surveys, most students showed a positive response as they understood the images through interests and paintings. On the other hand, there seemed to be a problem when

students disliked paintings altogether were unfamiliar with poems and refused drawing altogether. However, I will improve these problems and in the future I will find the connection to different art genres and mass media to grope various alternative education plans for modern images.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9
II.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가능성과 목표-----	14
1.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가능성-----	14
2.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목표-----	19
III.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모형-----	23
1.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27
2.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31
3.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33
4.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35
IV.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실제-----	40
1. 차시별 지도 계획-----	41
2. 학습 활동 지도안-----	43
3.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실제-----	52
4. 수업에 나타난 설문조사 및 평가-----	69
V. 결론-----	78
참고 문헌-----	81

<그림 목차>

<그림 1>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나와 마을(I and the Village)』 ,
1911, 캔버스에 유채, 192.1×151.4cm-----54, 58, 60

<그림 2>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해바라기(Sunflowers)』 ,
1888, 캔버스에 유채, 91×72cm-----62, 66



<표 목차>

<표 1>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의 절차-----	26
<표 2>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을 활용한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	26
<표 3> ‘회화 읽고 이미지 떠올리기’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	30
<표 4>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	32
<표 5>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	34
<표 6> ‘현대시 작품을 순간적 이미지화하여 시 창작하기’의 학습 활동지 예시-----	38
<표 7> ‘회화 작품을 시로 변용하기’의 학습 활동지 예시-----	39
<표 8>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차시별 계획-----	41
<표 9>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차시별 계획-----	42
<표 10>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53
<표 11> 김광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미지 정리하기-----	55
<표 12>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과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의 이미지 비교하기-----	58
<표 13> 마르크 샤갈의 『나와 마을』 시로 변용하기-----	60
<표 14>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이미지 떠올리기-----	61
<표 15>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이미지 정리하기-----	63
<표 16>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과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의 이미지 비교하기-----	65
<표 17>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순간적 이미지화하여 시 창작하기-----	67
<표 18>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 창작하기-----	68

<표 19> 수업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지	70
<표 20> 설문조사 1번	72
<표 21> 설문조사 2번	73
<표 22> 설문조사 3번	73
<표 23> 설문조사 4번	74
<표 24> 설문조사 5번	75
<표 25> 설문조사 6번	76
<표 26> 설문조사 7번	76
<표 27> 설문조사 8번	77



I. 서론

1. 연구 목적

지금까지의 문학교육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작품 감상의 원리를 습득하는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은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수동적인 활동을 해왔다.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삶에 대한 깨달음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문학은 문학을 학습하는 주체가 능동적인 문학 경험과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¹⁾ 뿐만 아니라 문학의 가치를 인식해 그 가치를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는 데 비중을 두어 문학 교육의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강화한 것은 문학의 수용과 함께 작품을 창작하는 일이다. 이러한 교육적 의도는 문학 활동으로써 소통과 문학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있다. 이는 문학 교육 분야에서 진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의 생산, 즉 창작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문학의 한 분야인 시 교육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문학의 표현과 이해를 알아가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 속에 나타난 시적 화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인 학습자가 충분히 작품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세련된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문학의 하나인 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속에 내면화하여 창작 작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22면.

2)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 교육론』, 역락, 2003, 13면.

이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시 교육을 하기 위해 최근 이미지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 시운동에서는 이미지가 없이 시가 존재할 수 없으며, 시에서 언어는 곧 이미지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이미지즘 운동의 선구자였던 T. E. Hulme은 “시인에 있어서 이미지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언어의 정수 바로 그 자체”라고 이미지의 중요성을 간파했다.³⁾ 이러한 시의 이미지 교육에서의 이미지는 시의 표현 기법의 하나인 리듬 등과 더불어 정서를 환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시의 정서뿐 아니라, 시적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찾아내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바를 감상하게 된다.⁴⁾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내면세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며 정서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기능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의 이미지 교육은 기존의 틀 안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의 하나로 가르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가 상상력을 통해 시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시와 소통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⁵⁾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시를 내면화할 수 있는 소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부터 습득하는 대상으로 인식해 버린다.

그러므로 이미지 교육을 통한 시 수업은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질 때 시의 정서를 파악하여 상상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창작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얻어지는 문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교육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삶을 경험하여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문학 장르는 음악, 미술, 건축 등 인접 예술이나 다양

3) T. E. Hulme 외, 윤지관 역, 『20세기 문학비평』, 까치, 1984, 17면.

4) 이해영, 「시의 이미지 교육 방법 연구 : 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면.

5) 김주향, 「시의 교육 방법 연구 - 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4면.

한 매체와 맥을 같이 하여 범교과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⁶⁾ 특히 ‘비교문학’ 등이 최근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교육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현대시 이미지 지도에 있어서 회화성이 두드러진 이미지를 회화와 연관하여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현대시뿐만 아니라 기호학, 수사학에서부터 광고나 여러 매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Roland Barthes는 시각 기호학에서 시각 이미지의 의미 작용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간단한 모델을 제시했다.⁷⁾

“메시지는 곧 매체이고 매체는 곧 메시지이다.”라고 선언한 Marshall McLuhan은 이미지도 한편으로는 메시지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인 것이다. 그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은 은연중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를 이미지의 문제에 대입한다면, 각각의 ‘이미지’가 가진 기술적 특성은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매체로서의 이미지가 곧장 메시지로서의 이미지로 환치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⁸⁾

Regis Debray은 우리의 시선이 지표적(indice)으로 작용하던 우상(idole)의 시대에서 도상적으로 작용하던 예술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시각적인(visual) 효과에 침잠하는 버추얼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분

6) 이현희, 「미술을 연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면.

7) Roland Barthes, 김인식 역, 『이미지와 글쓰기 -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론』, 세계사, 2005.

8) Marshall McLuhan, 박성규 역, 『미디어 이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석한다. 그에 따르면 사진과 영화는 예술의 연장선에 있고, 비주얼의 시대인 지금도 회화, 사진, 영화는 엄연히 공존한다. 또한 이미지의 지표적 영향력은 시뮬레이션의 시대에도 스크린을 뚫고 분출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선이 무엇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서구의 역사와 고전, 예술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성하는 대상들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선(매체, 매개의 결과)의 효과라는 것, 지각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서구 문명을 상대화시키고 그것을 매체와 전달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Umberto Eco는 기호란 ‘어떤 사물을 누구에게 어떤 관점 혹은 능력에서 대신하는 어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기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의미작용의 체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것은 기호가 될 수 있다. 언어, 소리, 이미지도 다 기호이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구술적이고 문자적 언어와 유사하게 일상 생활의 중요한 실천 방식이자 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경험되며 탐색될 수 있는 기호 의미체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현대적 삶의 해석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¹⁰⁾

임기대는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의 소통과 언어문화 철학 연구자로서 임기대의 글은, 인간의 사유방식이 성찰적인 방식에서 시각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문화 최근의 현상’을 통찰한 것이다. 그는 이미지는 단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나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미지가 작동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간 문화의 산물이며, 인간은 그 문화를 통해 보다 다각적 차원의 세계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

9) Regis Debray, 정진국 역, 『이미지의 삶과 죽음』, 글항아리, 2011.

10) Umberto Eco, 김주환 역,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1994.

로 이미지와 이미지 언어를 볼 때, 단순한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벗어나 현대 문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연구 대상과 관심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¹¹⁾

시의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랜섬은 마음에 어떤 상(象)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모든 묘사와 개념적 진술도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어구나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지로 생각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지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이미지의 개념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감수성이나 상상력이라는 주관적인 요인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의 이미지란 ‘일정한 객관적인 언어로서의 특징과 윤곽을 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랜섬이 개념적 진술도 이미지로 본다면 거의 모든 어구나 진술은 이미지를 성립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브룩스와 워렌은 개념적인 진술은 이미지를 표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특수하게 언급할 때에만 이미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험적 감각의 재현을 이미지리라고 부르고, 이미지는 단순히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독자의 감각에 호소하는 힘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한편 스퍼전은 직유나 은유만이 이미지를 만든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의 장점은 주로 그것이 이미지의 언어로서의 특징과 윤곽을 객관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것의 식별을 용이하게 만들어 그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버뱅크의 경우, 은유의 동의어로 쓰이는 이미지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각적, 후각적 및 촉각적 이미지란 말도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해 비유와 이미지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버뱅크의 주장은 두 가지의 경험적인 논거에서 이루어진다. 첫

11) 임기대, 『시각이미지의 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째, 은유는 두 가지의 것들 사이에서 성립되는데 그 두 가지의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심안에 떠올릴 수는 없으며 둘째, 이미지는 일정하게 떠오르는 것인데 은유를 것처럼 일정하게 떠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 은유의 기능은 주로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그가 염두에 두어 두는 이미지의 개념은 ‘닭은 것, 그림 또는 모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은유가 추리라는 지적 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동시에 또한 상상력을 발동시킴으로써 두 가지의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심상이 흔히 ‘머릿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의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심상이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며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심상이 시각적 심상에만 존재할 뿐 청각적, 후각적 및 촉각적 이미지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말은 버뱅크가 은유의 동의어로 쓰이는 이미지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각적, 후각적 및 촉각적 이미지란 말도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데이 루이스의 경우는 이미지를 “말로 만들어진 그림”으로 정의함으로써 비유만이 아니라 한 개의 형용사나 표면상으로는 순전히 묘사적인 어구나 구절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¹²⁾ 이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묘사적인 어구나 구절이 표면상으로는 묘사에 불과한 것 같지만 단순한 묘사만이 아닌 무엇을 상상에 전달하게 것이라는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그의 이미지의 정의는 상식적이면서도 포괄적이며 무난하다. 다만 한 개의 형용사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견해는 이미지의 개념을 너무 확대시키는 난점이 있다.

12) 김종길, 「이미지의 개념」,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려대 출판부, 1998.
윤석산, 『현대시학』, 문학시대사, 1996.

영국 이미지즘 운동의 선구자인 홉슨은 ‘시는 직각적 언어의 정수로서, 막연한 표지 언어를 피하고,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윌러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구로서, 역동성과 연결성을 지니며, 리드미컬한 패턴을 형성하면서 지향성을 띤다고 주장하고, 머리는 과거의 감각을 지적으로 재생하는 힘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이미지를 한결 역동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바슐라르는 인간에게 외부의 도전에 응전하는 힘이 있으며, 그 응전력은 역동적 상상력에 의해 이미지로 변형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미지를 단지 객관적 대상을 재현하거나 복사하는 기능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사물을 창조하는 힘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미지에 대한 국내의 견해를 보인 권영민은 시의 이미지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관념을 육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각을 환기하고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시의 이미지는 시인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감각적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시적 의미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시의 의미를 위해서는 이미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한다.¹³⁾

김재홍의 경우, 한 편의 시는 그 자체가 이미지의 한 단위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이미지는 시의 최소 의미단위인 낱말 속에서부터 구현되어 나타난다. 낱말은 낱말들끼리 모여 하나의 시행을 이루고 그 속에도 심상을 묘사하고, 각 시행들이 모여 작품 전체로서의 심상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 낱말의 이미지들이 행과 연, 그리고 작품 전체의 이미지들과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 통일된 질서를 얻을 때 그 시의 구조는 공고하다고 말할 수 있

13)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을 것이다.¹⁴⁾

다음은 현대시 이미지를 교육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것이다. 장정순은 시 쓰는 원리로서의 시적 형상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시적 형상성은 시라는 장르 관습에 의해 요구되는 형식적 자질이라기보다, 시작을 추동하는 시적 체험이 요구하는 표현 원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정경은 육체적 지각의 선명함을 통해 정서적 반응을 환기하게 된다. 이러한 육체적 지각의 선명함을 통해 제시되는 구체적인 정경, 즉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음’이 시적 형상성이다.¹⁵⁾

유영희는 한 편의 시를 다양한 이미지의 종합적 구성으로 보고 ‘이미지화’를 시 창작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미지화는 주어진 세계상에 대한 차용과 변용, 기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 이미지들의 대립, 조화, 반복, 나열 등의 조직으로 나누어진다. 한 편의 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순간적 혹은 지속적 이미지화와 지각 혹은 추상 이미지화의 단계를 거치거나, 나아가 이 모든 다양한 이미지들이 서로 혼용됨으로써 창조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¹⁶⁾

이현희는 문화적 문식성을 신장하고, 이 문화적 경험의 서사화를 통해 학습자의 창작까지 이르는 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했다. 그는 미술과 연계하여 배경, 이미지, 인물 학습을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인 그림 선정 단계, 그림 읽어내기, 이야기 쓰기, 비교하기에 맞추어 방안을 제시했다.¹⁷⁾ 이해영은 다매체 시대에 발맞추어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인 매체 활용을 통해 이미지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래, 그림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시했다.¹⁸⁾

14) 김재홍, 『문학개론』, 현대문학, 2007.

15) 장정순, 「시적 형상성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6) 유영희, 앞의 책, 2003.

17) 이현희, 「미술을 연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8) 이해영, 앞의 논문, 200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지 자체에 대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인접 예술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의 이미지 교육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장정순은 구체적인 시적 표현 교육의 체계를 제시한 것은 아니나 시 창작 교육의 기본적인 발판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영희의 연구도 연구는 시 창작의 의의를 제고하게 하고 다양한 이미지 발생의 연원을 파악하여 그것을 창조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교육적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 창작 교육의 방법적 진전을 이루었다. 반면, 이현희는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해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증명했지만, 그 교육적 방법이 새롭거나 다양하지 못했다. 또한 이혜영의 연구도 교육적 방법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현대시 이미지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져 왔고, 이미지 교육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매체를 활용하여 현대시 이미지 수업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 못했다. 이는 이미지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구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로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작품론이나 작가론에서 시 해석의 도구로 쓰이거나 이미지가 주된 시에서 활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여러 매체를 다양하게 열린 시각으로 적극 활용하여 시 교육 지도 방안을 활발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매체 중 하나인 회화를 연계해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또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에서는 회화를 현대시 이미지 지도에 적절하게 활용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이 연

구의 바탕이 되는 현대시의 이미지와 시적 상상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언급한다. 또한 시의 이미지가 회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최근 연구되고 있는 비교문학과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통해 밝힌다. 그리하여 회화와 연관지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문학 교육의 관점과 실제 프랑스 문학 교육의 모습을 통해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기대 효과와 함께 여기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논하면서 또 하나의 현대시 교육의 방안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론을 단계별로 구형했다. 이현희는 회화와 연계해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림 선정 단계, 그림 읽어내기 단계, 이야기 쓰기 단계, 비교하기 단계 순으로 문학 작품의 배경, 이미지, 인물 학습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문학 모형의 포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대시 이미지 교육만을 위한 본고의 지도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수업하기 전에 미리 교사가 회화 선정하여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로 재설계한다.

Ⅳ장은 Ⅲ장에서 설계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각각의 작품과 회화작품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 차시별 지도 계획과 학습 활동 지도안으로 제시한다. 그 다음 실제 수업으로 적용한 학생들의 학습 활동 답안지를 예를 들어 나타낸다. 또한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해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실제 수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중시하는 7차 교육 과정에 입각해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고는 이미지 교육에 대해 모

색한 것이므로 시의 요소인 리듬, 비유, 상징 등을 필요할 때 언급하지만 이미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지도 방안을 세웠음을 밝힌다. 따라서 작품 속의 이미지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분석하여 시 창작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시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 본고에서 선정한 작품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이다. 이 때 회화를 선정하는 범위는 서양화로 제한한 것에도 그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동양화는 선과 여백의미를 추구하다 보니 먹물의 농도로 색채감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양화가 가진 화려한 색채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¹⁹⁾

먼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증오하고 시에서 의미를 배제하려는 시작 의도와 태도를 지향하는 ‘무의미시’이다.²⁰⁾ 무의미시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이미지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장면들의 묘사이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연관성 없이 이어짐으로 각각의 이미지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서술적 이미지라고 한다. 서술적 이미지는 ‘관념을 배제한 이미지’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 이미지와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¹⁾ 이렇게 독특한 특성을 지닌 무의미시는 관념을 배제한 것이므로 다른 시들처럼 바로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그러므로 마르크 샤갈(M. Chagall)²²⁾의 『나와 마을』과 비교하여 감상케 한다. 「나의 마을은」 러시아 유대인의 마을 비테부스크,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 고향의 농촌생활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샤갈이 벨라

19) 김병규,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회화 학습에 관한 연구 : 서양화를 중심으로」,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0-21면.

20) 오형엽, 「김춘수 시의 기법 연구」, 『논문집 제24집』, 수원대학교 출판부, 2006, 7면.

21) 김미로, 「무의미시에 대한 교육적 고찰」,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07, 13-14면.

22) 마르크 샤갈(M. Chagall, 1887~1985), 러시아 출생의 표현주의 화가.

와 사랑을 나누던 때이기에, 유년의 고향을 담고, 고향의 그리운 이들을 담았다. 검은 하늘 밑에 다섯 채의 농가가 보인다. 그리고 정교회 건물과 그곳을 바라보는 신부, 일하러 가는 농부들, 샤갈이 주로 다룬 당나귀, 염소의 젖을 짜고 있는 여자, 얼굴이 초록인 소년이 중심인물이다. 또한 소년이 들고 있는 올리브 나무, 당나귀가 차고 있는 목걸이, 소년의 목걸이, 반지 등이 보인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 성과 세상,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사물 등 모든 것이 혼재해 있다.²³⁾ 그리하여 김춘수의 언어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사나이와 아낙들로 바꾼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속 한국의 시골마을이 병치되어 있는 작품과 함께 서로 비교하여 감상한다면 무의미시 속 서술적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해바라기’라는 같은 소재를 다룬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과 빈센트 반 고흐(V. v. Gogh)²⁴⁾의 『해바라기』이다. 함형수는 초기에 주로 비애나 우울, 공포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만주로 이주한 40년대 초기의 작품들은 모더니즘적 시각 태도를 보여준다. 그의 대표작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은 초기의 시 세계와 대비되는 뚜렷한 생명 의지가 보인 작품이다.²⁵⁾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두 작품 속에서 ‘해바라기’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 고흐는 해바라기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이 꽃의 ‘노란색’에 더 많이 매료되었다. 따라서 그는 ‘해바라기’를 자신의 꽃이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함형수는 ‘해바라기’가 자신의 시에서 사랑과 열정의 상징으로 전환시켜 놓았다.²⁶⁾ 이렇듯 ‘해바라기’의 황금 빛 노란색 이미지가 작품에서

23) 여지선, 『문학, 그림을 품다』, 푸른사상사, 2010, 141-142면.

24) 빈센트 반 고흐(V. v. Gogh, 1853~1890), 네덜란드 출생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25) 김유미, 「함형수 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면.

26) 윤호병, 『문학과 그림 비교 - 현대시에 반영된 그림의 영향과 수용』, 이종문화사, 2007, 36면.

형상화된 것을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색채 이미지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Ⅱ.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가능성과 목표

1.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가능성

이미지(image)는 어떤 대상의 감각적 인상을 전해 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그 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념들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시에서 이미지는 정신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상호관련을 맺으며 시를 형성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이미지는 구체적 묘사를 통한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형성된다. 상상력은 어원상 이미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²⁸⁾ 과거에 체험했던 사물의 이미지를 재생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 의해 환기된 감정과 생각을 조합하고 변형하여 하나의 시작품으로 형상화해 내는 능력이 바로 시적 상상력이다.²⁹⁾

이처럼 시적 상상력으로 형성된 이미지는 문학적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대시에 있어서 이미지즘 시운동을 중심으로 시의 회화성이 전에 없이 강조되고 있고 이미지가 없이 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시에서 언어는

27) 첫째, 정신적 이미지는 대상에 대하여 감각적 체험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대상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느끼게 해주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간다. 둘째, 비유적 이미지가 있다. 이들 비유들은 각각 말해지고(비유물), 의미하면서(실체) 언어장치를 담게 된다. 셋째, 상징적 이미지로서 현 문학교육에서는 원형 상징, 원형적 이미지의 개념으로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관습화되어 형성된 것이다. 현대문학사편, 『시론』, 현대문학, 1989, 52-63면.

28) 바슐라르는 어떤 특별한 물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동인으로서의 상상력을 설명하고,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 부여작용으로서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상상력에 주목하고 있다. 윤여탁,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6면.

29) 이승원, 「시 교육과 상상력의 문제」, 김은전 외,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87면.

곧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다.³⁰⁾ 또한 현대시 교육에서 시를 가르치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시의 이해를 위한 단서 중 하나로써 제공할 수 있다. 리듬과 함께 시의 대표적 구성 원리인 이미지는 언제나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고 사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³¹⁾ 이 때 시의 이미지는 시인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특수한 시각과 주관적 정서는 시인의 세계, 인생에 대한 태도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인 것이다.³²⁾

그렇다면 시의 이미지가 회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기 위해 기원전 5, 6세기에 최초로 언급한 그리스 시인 시모니네스는 짙막한 시행으로 시와 회화의 관계를 “그림은 말 없는 시,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라고 말했다. 이 때 ‘말하는 그림’으로서의 시는 행위의 전 과정을 제시하고, ‘말없는 시’로서의 그림은 행위의 한 단면을 제시한다. 이는 그림은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하여 그것을 말없는 언어인 색채와 선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정지시켜 놓는다. 반면, 시는 대부분의 경우 연속적인 동작을 포착하여 그것을 말하는 언어인 시어의 배열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진술되는 것이다.³³⁾ 즉, 색채와 선의 이미지인 그림 또는 회화와 시간적으로 이미지를 진술하는 시라는 점에서 ‘이미지’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모니네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예 비평가 미하일 바흐친은 ‘시간’과 ‘공간’의 예를 통해 문학과 예술 장르는 매우 유사하고 분리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정의했다.³⁴⁾

그러한 사상 속에서 비교문학이라는 학문은 그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비교문학의 정의를 레마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0)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3, 157면.

31) 김준오, 같은 책, 157,160면.

32) 김준오, 같은 책, 164,165면

33) 윤희병, 앞의 책, 234면.

34) 조용훈, 『문학 기호학으로 읽는 문학과 그림』, 효형출판, 2004, 43면.

비교문학이란 특정한 한 나라의 한계를 넘어선 문학의 연구이며, 동시에 지식과 신념의 다른 영역 예컨대 예술(회화, 조각, 건축, 음악), 철학, 역사, 사회과학(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자연과학, 종교 등 사이의 관계의 연구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한 나라의 문학과 다른 혹은 수 개의 문학의 비교이며 또는 문학과 다른 인간의 표현영역의 비교이다.³⁵⁾

위와 같이 비교문학은 문학 간의 비교뿐 아니라 여러 영역을 포함하여 예술과 문학도 비교하는 학문인 것이다. 김병택은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그림이 무엇의 매개를 통해 시에 수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설정한 수용의 범주는 ‘기억의 매개를 통한 수용’과 ‘유사성의 매개를 통한 수용’이다. 시에 수용되는 그림은 시의 논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특히 ‘유사성의 매개를 통한 수용’에서의 ‘유사성’은 시와 그림의 장르적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외면적 유사성을 진술 대상으로 한다. 그 유사성은 진술의 형식으로 표명되지만, 때로는 의문을 동반한 진술의 형식, 또는 의문의 형식으로도 표명된다.³⁶⁾ 김지선은 김춘수 시에 나타난 회화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면서 회화의 시적 수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미술작품이나 화가를 시창작의 소재로 삼는 경우와 미술작품에 대한 해석을 시창작에 수용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시 텍스트는 원 텍스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텍스트로서 주제나 이미지, 기법의 유사성이 없다. 그러므로 ‘회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각각의 텍스트를 주제, 이미지, 기법 등의 작품 해석의 기본 축 안에서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 텍스트의 해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회화 텍스트의 해석을 시에 수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시의 주제와 이미지, 기법을 비교 연구하여 각각 텍스트의 미학적 본질

35) Henry, H. H Remak, 이해순 역, 『비교문학』, 중앙출판, 1980, 178면.

36) 김병택, 『현대시의 예술 수용』, 새미, 2009, 5면.

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⁷⁾

이를 바탕으로 윤호병이 비교문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문학과 그림의 비교』는 한국의 현대시 작품에서 피카소, 몽크, 샤갈 등의 화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수용 및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연구되어 있다. 특히 현대시에 반영된 그림의 영향과 수용에 대해 샤갈의 『나와 마을』과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고흐 『해바라기』와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의 비교 연구는 본고의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다.

한편, 현대시 이미지에서 회화의 수용을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텍스트성 이론’이다. ‘상호텍스트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모든 텍스트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여러 인용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다른 텍스트들을 흡수하고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때 상호텍스트성이란 어느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을 말한다.³⁸⁾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최근 문학 교육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TV, 광고, 인터넷 등의 다매체 시대를 살고 있는 학습자들은 단순한 문학 작품의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등학교 문학 교육을 인접 예술이나 문화의 경험을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접 예술을 감상하거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학을 다른 예술로, 또 다른 예술을 문학으로 변환하며, 사회 현상을 문학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는

37) 김지선, 『김춘수 부단한 시적 실험의 도정과 무의미시』, 글누림, 2010, 326면.

38) 이성우, 『0/1 세계에서 시란 무엇인가』, 고려대 출판부, 2007, 74-75면.

1. 문학이 소통되는 다양한 매체 이해하기
2. 문학 작품을 다른 매체로 전환하기
3.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적 소통하기
4. 전자 매체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문학 소통의 특성 이해
5. 매체 활용한 문학에 비판적 접근하기³⁹⁾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다매체의 활용은 시를 문화의 하나이며 오늘날 우리의 문화생활은 다매체가 현실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수용자의 창의적 활동을 돕기 위해 수용자의 주체적 문화 경험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교육관과 관련된다.⁴⁰⁾ 여기서 3번의 지침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나 이미지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정서나 인식을 자극하여 문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⁴¹⁾ 이렇듯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매체 중 회화를 수용하는 것 역시 학습자에게 줄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회화와 연계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은 이미 자국어 및 문학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닌 프랑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그들의 자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를 통해서 회화나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페이지 당 평균 1, 2개의 이미지가 드러날 정도이다. 또한 본문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미술 작품을 주로 실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⁴²⁾

39)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2 국어』(교육부 고시 1997-15호), 2001, 316면.

40) 노철, 『시 연구방법과 시교육론』, 보고사, 2003, 200면.

41) 그러나 1번은 타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목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적처럼 개별 작품별로 그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도울 수 있도록 다매체문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 교육에서 매체의 활용은 언어 예술과 다른 매체의 차이와 소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개별 작품에 따라 그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시를 다른 매체로 바꾸거나 다른 매체를 시로 바꾸는 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철, 위의 책, 217면.

42) 김지영,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 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67면.

마치 미술 교과서를 보는 듯 다양한 시대의 미술 작품이 실려 있다. 프랑스의 문학 읽기 영역에서는 한국의 문학 영역과 유사하지만 회화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지 읽기를 적극 활용하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미지 읽기는 국어과의 중요한 모든 단원으로 설정되어 교수·학습 내용이면서 방법이 된다.⁴³⁾ 일부 교과서는 이미지 읽기를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아쉴트 출판사의 자료(dossier)가 그 예가 될 수 있다⁴⁴⁾. 이와 같은 프랑스 교육의 실태는 앞으로 한국의 국어 및 문학 영역에서 이미지 교육의 가치뿐 아니라 미술과 같은 수준 높은 인접 예술 영역과의 연관된 교과서 편찬 및 이미지 교육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시 작품의 해석을 가르치기보다 시의 화자가 시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파악하여 감상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⁴⁵⁾ 따라서 교사도 학습자들이 이미지를 통해 현대시를 폭넓게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매체와 연관하여 다양한 교육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여야 한다.

2.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목표

문학은 이미지로 제시되며, 그 가운데 이미지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시와 이미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알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이미지는 단순히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림’ 정도로 알고 지나친다. 아니면 시의 본질과 상관없이 이미지의 구체성이나 강조하고 넘어가 잘못된 교육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중요한

43) 유미향, 「프랑스의 국어 교과서 연구 : 단위 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1, 68면.

44) 유미향, 위의 논문, 48면.

45) 손혜진, 「이미지 중심의 시 교육 방안」,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8면.

것은 시교육에서 이미지의 위치는 시가 왜 이미지의 덩어리가 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⁴⁶⁾

그러므로 매체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회화 자체가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 매체를 거부하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활자로 된 문자 매체보다 시각적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다.⁴⁷⁾ 이는 학교 생활 이외에 TV, 영화, 만화, 광고, 인터넷과 같은 매체 속에서 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인류사에서 시각적 요소가 문자 매체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학습자에게도 익숙한 것이다.

둘째, 자신의 체험이나 정서 표현을 여러 교육 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일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또는 개성있게 표현하는 일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포’라는 감정을 단지 ‘무섭다’라고 말로 표현하거나, 겁에 질린 표정보다도 다른 대상에 빗대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발상이나 참신한 표현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고의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서 다룰 회화 감상, 직접 그림 그리기, 발표, 시 창작 과정은 다양한 발상과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미술 교육에서 말하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이 향상된다. 이것은 “시각적인 매체를 해독하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시각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인식하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시각적 문해력이 향상되면 미적 안목이 높아져 일상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대하는 시각적인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⁴⁸⁾

46)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2000, 44-45면.

47) 강은선,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 교육 방법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면.

48) 이현희, 앞의 논문, 25면.

넷째, 서양화가 가진 화려한 색채는 학습자의 심리치료 기능을 할 것이다. 색채는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에서 오는 다양한 심리상태를 대변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러한 색채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 즉 억압된 감정이 표출되기도 한다. 실제로 본고에서 활용된 작품의 작가 중 빈센트 반 고흐(V. v. Gogh) 역시 색채를 무의식의 억압된 내면 세계와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하고 극복하려는 치유의 수단으로 삼았다.⁴⁹⁾ 고흐 뿐만 아니라 에드바르 뭉크(E. Munch)도 불안한 자신의 정신 세계를 회화로 표출했다.⁵⁰⁾ 그만큼 화가인 이들의 심리를 달래줄 수 있는 것이 회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회화를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 접목했을 때의 교육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을 즐길 줄 알고 문학적 상상력의 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미지는 학습자의 내면 세계를 자극하여 학습자의 경험에 따라 문학적 상상력을 하게 한다. 이 문학적 상상력이 곧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때 회화가 지닌 이미지 속성이 현대시의 이미지와 어우러져 학습자에게 더욱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시적 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다. 시를 구성하는 이미지는 특히 작가나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감각적 이미지는 시인의 독특한 감성과 시적 분위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가 뚜렷한 회화를 통해 작가의 감수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는지를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적 감수성의 확장으로 창작 욕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이 TV, 인터넷과

49) 황세경, 「미술치료를 위한 작품연구 :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면.

50) 윤정숙, 「미술치료의 관점에서 본 Munch의 작품세계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8면.

같은 시각적 매체에 익숙한 이유가 사고력을 요하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화 중에서도 본고에서 다룬 서양화 작품의 경우 작가의 내면 세계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등이 쉽게 파악되지 않아 사고력과 통찰력을 요구한다. 무비판적으로 들어오는 요즘의 시각적 매체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학습자로 변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현대시 이미지 또한 학습자가 깊이 생각하여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넷째, 다른 장르의 작품을 비교·대조하여 분석력을 길러 비교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문학 작품이 더 이상 인문학에서만 다루는 영역이 아닌 타 예술이나 다른 학문과 얼마든지 상관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임을 인지하도록 이끌 수 있다.⁵¹⁾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사물이나 요소가 늘 고정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것과 합쳐져 또다른 것이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관념에 갇힌 수동성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훗날 문학 작품을 전혀 생각지 않은 또다른 영역과 비교하거나 통합하는 사고력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다섯째, 회화 작품 속에 있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파악해 자신의 삶에 내면화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는 예술 장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현대시 작품을 대할 때에도 작가의 의도나 내면세계를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성 교육이 잘 되지 않은 요즘 사회에서 간접적인 교육 효과를 맞볼 수 있을 것이다.

51) 윤호병, 앞의 책, 234면.

Ⅲ.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론

이현희는 회화와 연계해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림 선정 단계, 그림 읽어내기 단계, 이야기 쓰기 단계, 비교하기 단계 순으로 문학 작품의 배경, 이미지, 인물 학습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모형을 본고에서 하고자 하는 모형으로 그대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모형이 문학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전제이다. 이현희는 작품을 현대시 외에 소설과 같은 문학 장르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시만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는 단계의 순서이다. 이현희는 이야기 쓰기 단계 뒤에 비교하기 단계를 설정했다. 즉, 현대시 작품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창작 단계가 이해 단계보다 먼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시 작품을 비교하는 단계를 통해 충분히 작품을 이해하고 그 확장의 의미로 창작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수업하기 전에 미리 교사가 현대시의 이미지와 함께 분석이 가능할만한 회화를 미리 선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다음 이미지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수업이므로 현대시에 나타난 작가, 시대적 배경, 운율 등의 다른 요소도 교사가 역시 학습 활동지의 형태로 준비한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교사가 준비한 시와 관련된 학습 자료를 수업 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파악한 뒤에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시와 관련된 학습 자료는 이미지 교육 방법론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제외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수업으로 보여주는 것은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라는 네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었다.

이 때 네 단계를 위한 수업 모형은 기존의 시 수업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 구인환 등이 1988년에 제시한 ‘시 수업 절차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단계

- (1) 수업 목표의 설정
- (2) 평가 요목의 작성

진단 단계

- (1) 시에 대한 지식, 체험, 감수성의 진단
- (2) 진단을 위한 도구 마련

2. 지도 단계

- (1) 시 작품의 전체에 접근
 - ① 낭독 및 운독
 - ② 관련 경험의 재생과 경험 교환
- (2) 시 작품의 부분에 접근
 - ① 시 작품의 상황 파악
 - ② 시적 화자의 톤 이해
 - ③ 시의 이미지 파악
 - ④ 시의 율격 이해
 - ⑤ 시의 구성(구조) 이해
- (3) 시 감상의 종합적 재구성
 - ① 내용과 형식의 어울림
 - ② 말맛과 의미의 어울림
 - ③ 의미의 다의성과 함축성 이해

3. 평가 단계

- (1) 문학 교육 평가의 일반적 고려 사항에 의거
- (2) 시 교육의 평가 방법에 의거

4. 내면화 단계

- (1)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 (2) 시적 체험의 수직적 확대
- (3) 시 작품 쓰기⁵²⁾

이 모형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이론적이어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면화’의 단계가 어떤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수-학습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⁵³⁾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것보다는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기존의 수업 모형과 맞지 않다. 그러므로 네 단계를 위한 수업 모형으로 ‘탐구 학습’을 적용하기로 한다. ‘탐구 학습’은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극대화하여 사고력을 기르고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로 특정한 개념이나 지식을 터득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⁵⁴⁾ 그 종류로는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 실험형 탐구 학습, 개방형 탐구 학습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시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념 학습을 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을 선택했다.

다음은 본고에서 고안한 방법론을 적용할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의 일반적인 절차이다. 문제 확인하기, 자료 분석하기, 일반화하기, 적용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52) 구인환 외, 앞의 책, 248-249면.

53) 한지혜, 「시 교육에서의 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5면.

54) 이재승,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수업 방법 19가지]』, 교학사, 2005, 136면, 139면.

과정(단계)	주요 활동
문제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하기 • 관련 지식 및 개념 익히기/선수 학습 확인하기 • 문제 제시하기 • 문제 분석, 확인하기
자료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방법 찾기 • 자료 모으기 • 각 자료(예시) 검토하기 • 공통된 규칙 찾기
일반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된 규칙 정리하기 • 예외적인 사실 정리하기 • 결론 도출하기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 탐구 결과 보고 및 평가하기

<표 1>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의 절차⁵⁵⁾

이 절차를 고려해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을 활용한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

과정(단계)	주요 활동
문제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하기 •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55) 이재승, 앞의 책, 146면.

자료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시 속 이미지 찾기 ·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일반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한 것 정리하기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 시창작 발표하기 · 평가하기

<표 2>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을 활용한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

문제 확인하기 단계는 우선 시의 이미지라는 개념을 탐구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가 준비한 회화를 통해 이미지를 떠올려본다. 자료 분석하기와 일반화하기 단계는 본고의 방법론인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와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는 과정을 삽입했다. 마지막 적용하기는 이미지로 시를 창작하여 그 작품을 다른 학습자와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끝난다.

1.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제시한 회화를 이미지를 떠올리며 해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 단계는 교사나 학습자가 어렵게 느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문학과 회화는 같은 예술의 분야이면서도 문학에 비해 회화가 더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여러 종류, 여러 수준의 작품들이 존재하고, 문학 작품을 선택해서 감상하는 것에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회화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일차적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 그림 감상은 초등학교 미술 교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그림을 어떻게 선택해서 감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교육과정에 미술 감상에 대한 내용과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회화에 대해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⁵⁶⁾ 더군다나 고도의 미적 안목이 필요로 하는 서양의 유명 회화의 경우에는 더욱 부담감이 크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속의 서사적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전체적인 선이나 색채가 가지는 느낌을 접근할 수도 있도록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은 자유롭게 주된 배경 지식에 근거한 평이한 해석은 안된다. 왜냐하면 학습자마다 시각적 문해력이나 배경 지식의 차이가 드러나면, 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나 이 분야에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으로 고정된 배경 지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 있는 미적 상상력으로 회화 자체가 주는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각별히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고정된 분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미술 수업이 아닌, 수평적인 선상에서 문학과 연관성을 접근하려는 낮은 회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회화를 읽어내는 데 한계점을 주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회화 자체를 분석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대시를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기초 작업 중의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회화를 제시하기 전에 현대시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강이라도 먼저 볼 수 있도록

56) 김현아, 「회화적 상상 활동을 통한 문학 상상력 교육 연구」,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면.

학습 활동지에 제시하여 이와 관련된 회화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회화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해석을 하는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회화를 보여주기 전에 열린 시각으로 회화를 대할 수 있도록 발문 또한 열려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시각적 문해력이 뛰어난 학습자일수록 깊이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발문으로 유도한다. 반면 시각적 문해력이 저조한 학습자는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닫힌 발문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살펴가며 점층적으로 열린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단계를 위해 교사가 회화를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설명해 준다면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다가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교사가 수업 준비 시 회화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해석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듯이 회화와 같은 다른 예술 장르가 낯선 교사에게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지만, 시를 읽어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교사가 이렇게 학습자와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회화뿐 아니라 문학 교육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학습자 역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발문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회화든 막론하고 상황이나 정서에 따른 분위기와 색채에 따른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눈 이유는 먼저 학습자가 회화에 다가가기 쉽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학습자마다 회화를 분석하는 능력이 저마다 다르므로 쉽게 접근하여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상황 및 정서 그리고 색채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화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 연구 등의 미술 지식 등을 배제하여 현대시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인 회화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은 회화 읽고 이미지 떠올리기 작업을 위한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

현대시

* 다음 회화는 위의 현대시를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이 회화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회 화

1.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이는가?

2. 회화에서 어떤 상황(표정)이 나타나는가?

3. 회화 속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는가?

4. 이 회화에 주로 사용된 색은 무엇이며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

이다.

<표 3>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

<표 3>는 회화를 이미지로써 분석할 수 있는 발문을 볼 수 있다. 회화가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이나 인물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이미지화하기, 색채 이미지 나누었다. 이 때 교사는 회화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각도로 학습자들이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발문을 세분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대시를 처음 읽는 단계이자 그 속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작업이다. 이 또한 앞의 단계보다 학습자에게 어려운 단계일 수 있다. 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문자 매체에서 이미지를 연상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미지로 파악하기 위해 학습 활동지를 이용하여 시상 전개를 한다. 여기서 시상 전개란 소재를 배열하여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과 시의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시를 이루는 각 요소가 주제를 향하여 통합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전개된다. 이러한 시 전개의 질서를 파악했을 때 시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다.⁵⁷⁾ 이 때 주의할 사항은 관념시나 초현실주의시와 같이 시상 전개로 파악하기에는 학습자가 다가가기 어려운 것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미지를 잘 활용한 이미지시나 또는 서사적인 요소가 강한 서사시, 자신의 정서가 뚜렷한 서정시가 적절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에게 지도하기 전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다룰 현대시가 쉽게 시상 전개를 할 수 있는지, 또 시상 전개를 통해 시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단계에서도 다룰 수 있지만, 미리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시상전개로 그린 그림들을

57) 박화선, 「시 교수 학습의 개선 방안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1면.

변용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내면화하거나 창작하는 학습을 적용해도 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시상 전개를 그림으로 제시했지만, 그림 그리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콩트로 표현해도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후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가 감각적 이미지가 있는 시어를 찾아내 분류해본다. 이는 시적 이미지가 감각적 사고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감각적 이미지는 이미지의 유형 가운데서도 시인의 독특한 감성과 시적 분위기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인의 사물과 세계를 향한 감수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상상력의 변용, 확장으로 문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이때 회화와 연관성이 깊은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이므로 이를 좀더 자세하게 나눈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 중 하나인 색채 이미지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읽어내는 시 작품에서 감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작품 안에서 독특한 작가 세계가 돋보이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 또한 분류해본다. 예를 들어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도시적)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 있는지 생명력 있는 이미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찾아 분류해 보시오.

현대시

58) 황경해,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면.

된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앞에 활동한 단계의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도표를 통해 각각의 이미지를 분석·정리한다. 이에 따라 두 장르를 비교하는 것은 현대시의 이미지를 찾는 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다. 실제 교육하고자 하는 대상을 위한 지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현대시에서 시상전개, 감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를 찾아가면서 두 장르에서의 서사적 흐름, 감각적인 요소, 색채 등을 비교·대조한다. 또한 분위기가 비슷한 그림이나 상반된 다른 그림들을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보아도 된다. 이 과정은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 관련한 학습능력이 우수해 심화 학습이 되는 학습자를 위한 것이지만 일반 학습자에게도 가능하다면 적용해도 좋다. 이는 이 활동이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돕고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전략은 학습목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작품 별 특성에 따라 추가되거나 새로운 학습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다음 두 작품의 비교하는 문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시	회 화
1. 두 작품의 공통되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두 작품의 차이점은 있는가?	

<표 5>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학습 활동지 예시 모형

4.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마지막 단계는 시 창작 분야에서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활용해 보는 것이다. 이미 체험해 본 문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나타내 내면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역시 중요한 것이 학습자이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태도, 관심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시 창작을 위한 이미지화하는 일도 교육 환경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시 창작을 위한 첫번째 과정은 글보다는 시각적 매체 등이 더 익숙한 학습자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방식을 먼저 하는 것이다. 이는 글을 쓰기 전에 주어진 문제와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써 나가는 방식이다.⁵⁹⁾ 질문에 흥미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의 독특한 활동으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시를 다가가는데 작업이므로 교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혼자서 하는 브레인스토밍 방법과 집단이 함께 하는 집단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나눌 수 있다. 개인 브레인스토밍은 개인적이며 개별적이어서 독창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학습자는 브레인스토밍 내용이 풍부할 수 있지만 다른 아동은 그 내용이 빈약하기 그지없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차의 극복이나 아이디어의 풍부함

59) 강경순, 「창의적 사고를 통한 시 교육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0면.

을 위해 집단 브레인스토밍이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⁶⁰⁾ 그러므로 학습자의 수준이나 여러 환경을 생각해 교사는 개인 브레인스토밍,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취사선택한다면 지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먼저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시 제목을 보고 이미지 연상하기 작업이다.

이 지도는 가능한 시의 본문을 읽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이미 시의 본문 속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읽기 전 학습자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의 본문과 관계없이 제목만으로 학습자의 정서 및 자신의 체험 등을 자유롭게 연상하게 한다. 이 때 학습자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들을 정리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한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료들 중에 학습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려 발표하게 한다. 단, 교사가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와 동기 유발의 목적으로 학습자들을 발표해야 한다. 따라서 2명 정도 간단하게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연상한 정서나 체험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규칙 4가지이다. 첫 번째 규칙은 ‘비판이 제거돼야 한다(Criticism is ruled out).’인데 아이디어의 산출을 저해하는 비판, 평가 또는 판단은 마지막까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비판 엄금, 비판 금물, 평가 보류, 평가 유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규칙은 ‘자유분방한 사고를 환영한다(Free-wheeling is welcomed).’이다. 산출된 아이디어가 거칠수록 좋다는 의미다. 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말해도 좋다는 의미로, 약간은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웃긴 아이디어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60) 강경순, 앞의 논문, 41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규제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세 번째 규칙은 ‘양이 요구된다(Quantity is wanted).’이다. 즉, 아이디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질 높은 아이디어보다는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많은 양의 아이디어 속에서 질 높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는 모두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규칙은 ‘결합과 개선이 추구되어야 한다(Combination and improvement are sought).’이다. 이 규칙은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한다는 의미로 히치하이크나 무임승차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타인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인데, 이 규칙이야말로 브레인스토밍이 집단기법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어떤 사람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에 다른 사람이 편승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참여자 전원의 아이디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에 앞서 직관을 통한 순간적 이미지화 활동을 먼저 실시한다. 순간적 이미지는 어느 순간 머릿속을 스치며 단편적으로 지나가는 강렬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 이미지의 구상은 이미지화를 위한 최초의 발상 단계라고 할 수 있다.⁶¹⁾ 뿐만 아니라 시 창작의 초보인 학습자에게도 창작 주체로 끌어올리는 자연스러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지와 관련하여 학습 활동으로는 ‘현대시 작품을 순간적 이미지화하여 시 창작하기’이다. 이는 현대시를 읽고 직관으로 떠오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미지로 남기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를 마음속에 각인

61) 유영희, 앞의 책, 245면.

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미지를 남겨 짧고 간결한 시로 언어화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중요하다.

다음은 ‘현대시 작품을 순간적 이미지화하여 시 창작하기’의 학습 활동 예시이다.

* 왼쪽의 작품을 감상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꿈 등에서 본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인식한 것을 만화 또는 그림으로 그려보자.			
현대시	⇒	그림	그림
현대시	⇒	그림	그림
* 위의 그림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해보자.			

<표 6> ‘현대시 작품을 순간적 이미지화하여 시 창작하기’의 학습 활동 예시

위 학습 활동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순간적 이미지를 자신의 경험이나 꿈에서 떠오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단계이다. 즉, 일상 속에서 강한 인상을 준 이미지라면 단편적이더라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활동은 자칫 실제 교육 현장처럼 특정 제재를 제시함으로써 강제적⁶²⁾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시 작품은 특정 제재를 주되, 순간적 이미지화는 학습자의 재량껏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의 전 단계에서 두 작품을 비교할 때 기준을 세운 시상전개, 감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등 시 창작에서도 기준으로 삼는다.

62) 유영희, 앞의 책, 260면.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은 ‘특정 이미지와 관련된 시 창작’이다. 여기서 하게 될 활동은 ‘회화 작품을 시로 변용하기’이다. 회화는 특성상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시각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첫 번째 학습 모형 때 찾은 시각적 이미지를 언어화하여 창작하거나 색채 중에 강렬하게 와 닿는 것을 선택해 언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창작한 시 작품과 회화와 관련된 작품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또는 회화와 정반대의 시각적 이미지나 색채를 생각하여 시 창작하는 방법도 있다. 학습자의 도움을 위하여 현대시 작품과 연계된 회화와 정반대의 시각적 이미지나 색채를 가진 회화를 제시하면 좋다. 이 때 변용 과정을 돕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다음은 ‘회화 작품을 시로 변용하기’의 학습 활동 예시이다.

* 다음 회화 작품을 보고 시로 변용하시오.
-브레인스토밍-



회화 ⇒ 창작한 시

1. 두 작품의 공통되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두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표 7> '회화 작품을 시로 변용하기'의 학습 활동 예시

IV.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실제

본 연구는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 효과적인 지도를 마련해 이를 적용한 후 시 결과물을 분석한다. 이 결과물과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습자의 시에 대한 태도 변화, 교육현장의 적용 가능성, 적용 후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시 대상은 2011년 5월 부산시 남구 소재 P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아직 문학교과서를 접하지 못한 1학년이나 입시 문제로 참여하기 힘든 3학년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본고에서 구안한 학습 활동 지도안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인원은 남자 7명, 여자 7명의 총 14명으로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구성되어 있다.

Ⅲ장에서 제시한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을 활용한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을 토대로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현대시의 작품 분석은 수업 전 교사가 수업하고자 하는 현대시 작품을 이미 분석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되었다. 이미지만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작품 전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학습자가 아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그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학습자에게도 좀 더 효율적인 현대시 이미지 교육이 될 것이다.

다음은 차시별 지도 계획 및 학습 활동지도안이다. 이를 작품에 따라

나눈 이유는 수업에 쓰일 현대시 작품에 따라 수업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든 수업을 2차시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1차시에는 ‘자료 분석하기’와 ‘일반화하기’ 단계로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에 해당한다. 이는 이미지를 통한 현대시 작품의 이해뿐 아니라 2차시에 전개될 창작 단계를 위한 작품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이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는 전차시의 수업을 했음을 가정한다. 여기서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와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는 2, 3인이 한 모둠을 이루어 수업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시 수업에 처음 접하거나, 학습 능력이 취약한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2차시에는 ‘적용하기’에 는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단계이다.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로 시를 창작해보고, 그 작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작품과 상대방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실질적인 내면화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업 결과 분석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학습 활동은 이번 수업에서 중심이 되므로, 학습자들이 이미지를 폭넓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1. 차시별 지도 계획

1)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과 마르크 샤갈 『나의 마을』

차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	-------	-------

1	<p>1. 이미지의 개념을 안다.</p> <p>2.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을 이미지를 통해 무의미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p> <p>3. 회화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비교·대조하기</p>	<p>1.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 나타난 이미지를 찾아 정리하기</p> <p>- 학습활동을 통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 관념을 배제한 서술적 이미지 등을 파악하여 무의미시 이해하기</p> <p>2. 시 작품을 통해 무의미시의 특징 알기</p> <p>3.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대조하기</p>
2	<p>1. 원텍스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다.</p> <p>2. 발표를 통해 창작한 작품을 공유해 내면화할 수 있다.</p>	<p>1.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p> <p>- 각 분리된 이미지로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시로 창작하기</p>

<표 8>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차시별 계획

2)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과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차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	-------	-------

1	<p>1. 현대시의 이미지를 이해한다.</p> <p>2.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p> <p>3. 회화와 비교하여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안다.</p>	<p>1.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에 나타난 이미지를 찾아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을 통해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등을 파악하여 시의 분위기와 작품 의도를 이해하기 <p>2.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와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비교·대조하여 색이 주는 정서 파악하기
2	<p>1.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p>	<p>1. 이미지로 시 창작 및 내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이미지를 이용한 시 창작하기와 <p>뚜렷한 생명 의지가 보이는 시 창작을 통하여 내면화한다.</p>

<표 9>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차시별 계획

2. 학습 활동지도안

1)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

◇ 1차시

단원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차시	1/2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이미지의 개념을 안다. 2.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을 이미지를 통해 무의미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3. 회화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비교·대조하기				
준비	교과서, 학습 활동지				
교수 · 학습 모형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 개인/모둠 학습	수업 배분	도입 5	전개 42	정리 3 총 50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인사	· 인사 및 출석 확인 · 모둠별로 앉을 수 있도록 한다. - 2인 또는 3인으로 미리 계획한 모둠을 학생에게 제시하여 진행한다.	
	전시학습 확인	· 전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이미지의 개념 - 무의미시	
	학습동기 흥미유발	· 예술은 장르가 다른 인접 예술이나 다양한 매체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	

		(예) 김소월 『진달래꽃』(문학)과 가수 마야 『진달래꽃』(음악)	
	학습목표 확인	·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큰소리로 읽게 한다.	
전개 (42')	개별학습 (10')	· 학습 활동지를 배부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한다. · 자료 분석하기 - 학습 활동지의 <표 10>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 회화 보고 그와 관련된 문항을 통하여 이미지 떠올려본다. - 이를 통해 회화 속 분위기, 상황이나 색채를 통한 정서를 이미지로 파악하게 한다.	학습 활동지
	발표 (5')	· 몇 명의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지를 푼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발표시 서술적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 회화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활동지
	모둠학습 (20')	· 자료 분석하기 - 학습활동지의 <표 11>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미지 정리를 모둠별로 풀어보도록 한다. · 일반화하기	교과서, 학습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12>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과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 의 이미지를 모둠별로 정리하도록 한다. - 교사는 원활한 모둠 활동을 위해 각 모둠의 진행을 살피며 지도한다. 	
	모둠발표 (7')	· 학습 활동지에 정리한 내용을 두 모둠이 발표하게 한다.	교과서, 학습 활동지
정리 (3')	정리 차시예고 (8')	· 학습 활동지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교과서, 학습 활동지

◇ 2차시

단원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차시	2/2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원텍스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다. 2. 발표를 통해 창작한 작품을 공유해 내면화할 수 있다.					
준비	1, 2차시 학습 활동지					
교수 · 학습 모형	시 창작 학습	수업 배분	도입 7	전개 38	정리 5	총 50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7')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확인 · 모둠별로 앉을 수 있도록 한다. - 2인 또는 3인으로 미리 계획한 모둠을 학생에게 제시하여 진행한다.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 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의 이미지 공통점과 차이점 -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의 무의미시의 특징 	1차시 학습 활동지
	학습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큰소리로 읽게 한다. 	
전개 (38')	개별 시 창작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하기 - <표 13> 샤갈의 『나와 마을』 시로 변용하기를 통해 시 창작하도록 한다. -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여 관찰하면서 창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2차시 학습 활동지
	모둠별 발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각 모둠원 모두 창작한 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어진 시간에 완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미 	2차시 학습 활동지

		완성분을 발표하게 하여, 다음 시간까지 시 창작을 완성하게 한다.	
정리 (3')	정리 차시예고	·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정리한다. · 학생의 창작된 시를 제출하게 한다. ·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2)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과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 1차시

단원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차시	2/2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현대시의 이미지를 이해한다. 2.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회화와 비교하여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안다.						
준비	1, 2차시 학습 활동지						
교수 · 학습 모형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 개인/모둠 학습	수업 배분	도입 7	전개 38	정리 5	총 50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확인 · 모둠별로 앉을 수 있도록 한다. - 2인 또는 3인으로 미리 계획한 모둠을 학생에게 제시하여 진행한다.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이미지의 개념 - 작가 함형수 	
	학습동기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관지어 공부할 빈센트 반 고흐와 노란색의 관계를 설명한다. -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색채를 무의식의 억압된 내면세계와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하고 극복하려는 치유의 수단으로 삼았다.⁶³⁾ - 색채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흥미 유발하도록 한다. 	
	학습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큰소리로 읽게 한다. 	
전개 (42')	개별학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지를 배부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한다. · 자료 분석하기 - 학습 활동지의 <표 14>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회화 보고 그와 관련된 문항을 통 	학습 활동지

		<p>하여 이미지 떠올려본다.</p> <p>-이를 통해 회화 속 분위기, 상황이나 색채를 통한 정서를 이미지로 파악하게 한다.</p>	
	<p>발표 (5')</p>	<p>· 몇 명의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지를 푼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p> <p>· 발표 시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 회화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학습 활동지</p>
	<p>모둠 학습 (20')</p>	<p>· 자료 분석하기</p> <p>- 학습활동지의 <표 15>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이미지 정리를 모둠별로 풀어보도록 한다.</p> <p>· 일반화하기</p> <p>- <표 16>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과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의 이미지를 모둠별로 정리하도록 한다.</p> <p>-교사는 원활한 모둠 활동을 위해 각 모둠의 진행을 살피며 지도한다.</p>	<p>교과서, 학습 활동지</p>
	<p>모둠발표 (7')</p>	<p>· 학습 활동지에 정리한 내용을 두 모둠이 발표하게 한다.</p>	<p>교과서, 학습 활동지</p>
<p>정리 (3')</p>	<p>정리 차시예고</p>	<p>· 학습 활동지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p>	<p>교과서, 학습</p>

(8')	·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활동지
------	----------------	-----

◇ 2차시

단원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차시	2/2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준비	교과서, 학습 활동지					
교수 · 학습 모형	시 창작 학습	수업 배분	도입	전개	정리	총
			7	38	5	50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7')	인사	· 인사 및 출석 확인 · 모듈별로 앉을 수 있도록 한다. - 2인 또는 3인으로 미리 계획한 모듈을 학생에게 제시하여 진행한다.	
	전시학습 확인	· 전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과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의 이미지 공통점과 차이	

		<p>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의 시적 의도 	
	<p>학습목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큰소리로 읽게 한다. 	
<p>전개 (38')</p>	<p>개별 시 창작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하기 - <표 17>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순간적 이미지화하여 시 창작하기와 <표 18>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 창작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창작하도록 한다. -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여 관찰하면서 창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p>모둠별 발표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각 모둠원 모두 창작한 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어진 시간에 완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미완성분을 발표하게 하여, 다음 시간까지 시 창작을 완성하게 한다. 	
<p>정리 (3')</p>	<p>정리 차시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정리한다. · 학생의 창작된 시를 제출하게 한다. ·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3.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실제

1)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과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

<p>학습활동 :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p>	<p>박지훈, 석민수</p>
<p>샤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 봄이 바라고 썼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쫓는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三月)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p>	
<p>* 다음 회화는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을 이해하기 위한 마르크 샤갈의 『나와 마을』이다. 이 회화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시오.</p>	



<그림 1>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나와 마을(I and the Village), 1911, 캔버스에 유채, 192.1×151.4cm

1.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이는가?

신비스럽고, 몽환적이다.

2. 그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왼쪽의 염소와 오른쪽의 사람의 표정은 어떠한다고 생각하는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웃고 있는 것 같다.

3. 그 나머지의 이미지들은 분위기는 어떠한가?

검은 하늘 밑에 일터로 가는 두 남녀와, 젖을 짜고 있는 여인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처럼 묘사한 것 같다.

4. 이 회화에 주로 사용된 색은 무엇이며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

빨강, 파랑 초록, 흰색, 검은색 등 원색으로 되어 있다. 강렬한 느낌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검은색으로 인해 암울한 느낌도 든다.

<표 10>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학습활동 :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송호진, 장건영
<p>* 이 작품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찾아 분류해 보시오.</p> <p>샤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 봄이 바라고 쫓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편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三月)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뿔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p>	
<p>* 작품 위에 이미지에 따라 네 장면으로 나누어 보고, 이를 그림을 그려 시상 전개를 나타내시오.</p>	

눈 덮인 어느 마을에 3월이 오는 장면



정맥이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떨고 있는 장면



날개를 단 수많은 눈들이 사갈의 마을을 덮는 장면



↓
불을 아궁이에 지피는 장면



각 이미지
눈 덮인 어느 마을에 봄이 오는 이미지
정맥이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떨고 있는
날개를 단 수많은 눈들이 샤갈의 마을을 덮는
불을 아궁이에 지피는 장면

<표 11>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미지 정리하기

학습 활동 :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양승리, 정다울
<p>* 다음 두 작품의 비교하는 문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p> <p>샤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p> <p>봄이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p> <p>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떠난다.</p> <p>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p> <p>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p> <p>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p> <p>3월(三月)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p>	
	
	<p><그림 1>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나와 마을(I and the Village), 1911, 캔버스에 유채, 192.1×151.4cm</p>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1. 두 작품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마을에 볼 수 있는 풍경을 이미지화했다.(샤갈의 마을)

시에서는 한 겨울에 봄이 온다고 하고, 회화에서도 염소 얼굴에 염소 젖을 짜고 있는 여인이 있는 것처럼 꿈 속에서 보는 듯하다.

시에서는 “3월에 눈이 온다”가 2번 반복되고, “새로운 정맥이 바르르 뚫는다”가 2번 반복되어 짝을 이루고, 회화에서도 큰 염소와 사람, 작은 염소와 여인, 일하는 남녀가 서로 짝을 이룬다.

2. 두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한 겨울에 봄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어 희망적 이미지가 느껴짐
『나와 마을』	원색을 사용했지만 검은 하늘이 배경인지라 절망적 이미지가 느껴짐

<표 12>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마르크 샤갈 『나와 마을』의 이미지 비교하기

학습 활동 :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2

권소진

* 마르크 샤갈의 『나와 마을』에 있는 이미지를 정리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해보자.



<그림 1>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나와 마을(I and the Village), 1911, 캔버스에 유채, 192.1×151.4cm

마을의 저주

우리 마을 중심에

늘 있던

행운 나무

초록빛 빛을 내던

그 나무

귀하던 그 나무 밑에

우린 짐승들과 서로 마주보며

늘 웃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 무섭다는 욕심이 생겨
 마을 사람들
 나무 서로 베려 하고
 짐승들 서로 죽이려 하더니

 결국
 우리 마을에 저주가 내려
 마을은 흑빛으로 물들고
 우린 그 욕심 하나로
 떠돌며 살 수 밖에 없었다.

<표 13> 마르크 샤갈의 『나와 마을』을 시로 변용하기

2)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과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학습 활동 :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김혜연, 홍의표
<p>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푸른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 </p>	

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찌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다음 회화는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이해하기 위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이다. 이 회화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그림 2>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해바라기(Sunflowers), 1888, 캔버스에 유채, 91×72cm

1.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한가?

해바라기가 처져 있는 것도 있고 꽃잎이 날카로워 노란색의 밝은 느낌과 대조되는 것 같다. 또한 꽃병의 들어있는 해바라기가 무질서하게 있어 산만한 느낌을 준다.

2. 이 회화에 주로 사용된 색은 무엇이며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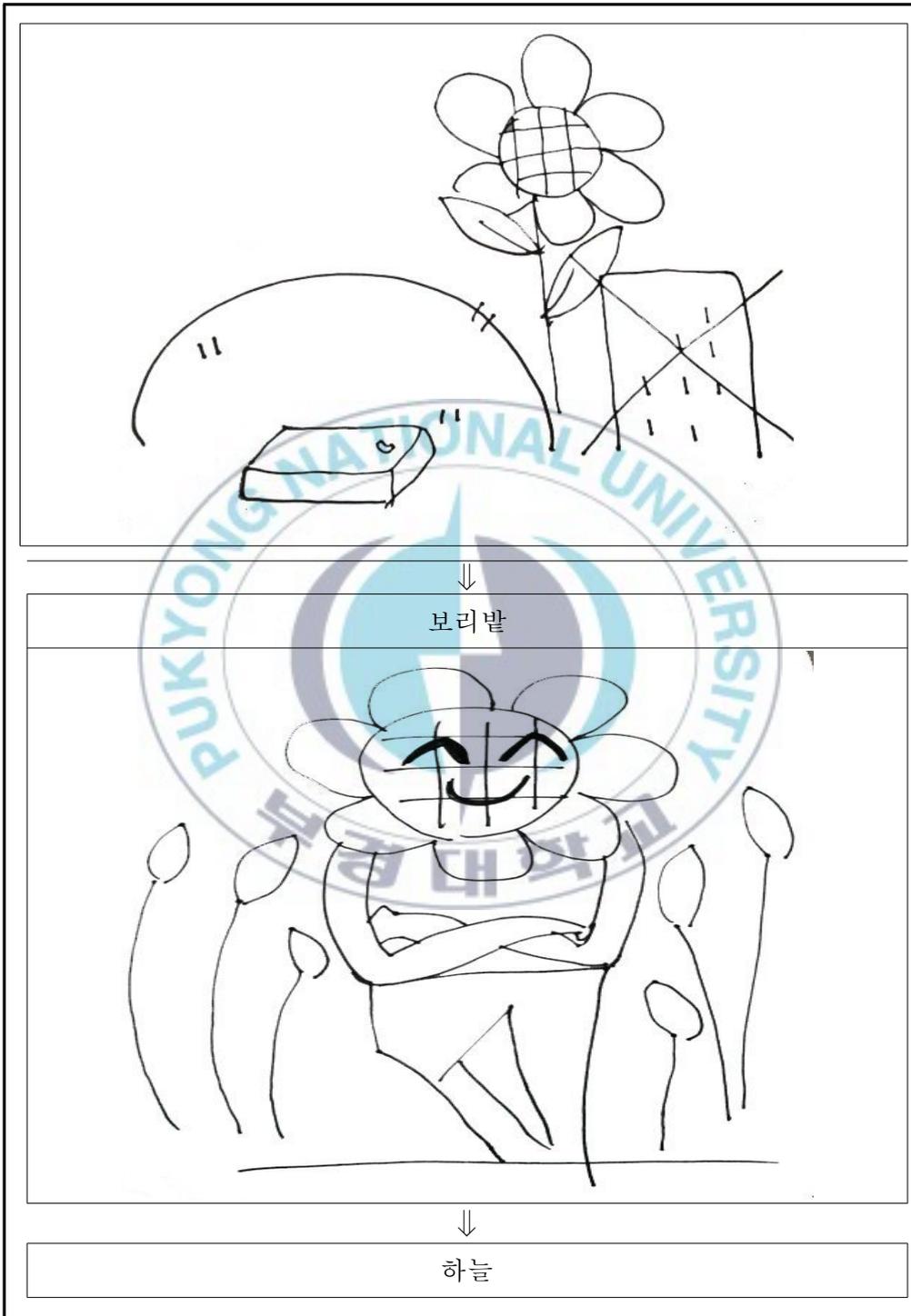
노란색 계통이 대부분이고 초록색, 하늘색 등이 보인다. 해바라기에게 생명력이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해 보인다.

3. 이 색채를 보면서 떠오른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오.

해바라기처럼 늘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어머니의 인자함이 느껴진다.

<표 14>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이미지 떠올리기

학습 활동 :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임영환, 김준엽
<p>* 이 작품은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이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찾아 분류해 보시오.</p> <p>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푸른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찌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p> <p style="text-align: right;">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p>	
<p>* 작품 위에 세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으로 시상 전개를 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30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무덤</div>	



	
생명력이 있는 이미지	생명력이 없는 이미지
노오란 해바라기	무덤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차가운 빗돌
끝없는 보리밭	색채 이미지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	노오란 해바라기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	푸른 보리밭

<표 15>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이미지 정리하기

학습활동 :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정수정
<p>* 다음 두 작품의 비교하는 문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p> <p>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 돌을 세우지 말라.</p> <p>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p>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푸른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그림 2>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해바라기(Sunflowers), 1888, 캔버스에 유채, 91×72cm

1. 두 작품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재가 '해바라기'라는 점, 노란색이라는 색채 이미지가 뚜렷한 점, 노란색 해바라기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점.

2. 두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해바라기를 '태양같이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삶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해바라기, 보리밭, 노고지리는 자연 속에서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미처 피지 못하거나 처져 있는 모습에 게서 시들어 있는 것처럼	여러 송이의 해바라기가 개방적이 공간에서 꺾여 꽃병에 들어있어서 간혀

	보인다.	있는 느낌을 준다.
--	------	------------

<표 16>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과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의 이미지 비교하기

학습 활동 :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1	황민우
*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감상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꿈 등에서 본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인식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p>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빛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 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p>	
<p>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 리 사이로 끝없는 푸른 보리 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 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p>	
<p>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쫓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 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 라고 생각하라.</p>	
* 위의 그림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해보자.	
애한	
그대여 왜 그러시나요	

북극 같은 싸늘함이 내비친다

빙하 위에 내비치는

파란 바다가 너의 눈에 담긴다

너의 눈에 차가운 파란색이 내비친다

너의 눈은 파란색이 되었다

너의 마음마저 차가운 파란색이 되었다

<표 18>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 창작하기

4. 수업에 나타난 설문조사 및 평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의 이미지 교육은 각 작품 당 2차시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을 끝내고 난 뒤에는 곧바로 이번 수업에 참여한 16명의 학생 모두가 설문조사에 응해 주었다. 이는 수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실제 수업을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을 아는 것이 제일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설문조사는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했다. 그 중에서 1, 2번은 수업을 받기 전의 상태, 3, 4번은 회화를 통한 이미지 교육 방법론, 5, 6번은 수업을 받고 난 후의 변화, 7, 8번은 매체 활용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이유를 통하여 학습 효과와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설문조사지이다.

설문조사 :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수업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수업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의 자신의 생각과 이번 수업 후 느낀 것을 알아보다 앞으로 발전된 시 수업을 하는데 참고할 예정입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각 답변에 대한 특별한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문학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인가?

- ① 시
- ② 소설
- ③ 수필
- ④ 희곡/시나리오

이유 :

2. 기존의 시 수업은 어떠했나?

- ① 좋았다.
- ② 보통이다.
- ③ 좋지 않았다.

이유 :

3. 이번 수업에 적용한 학습 활동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 ①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 ②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 ③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④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이유 :

4. 이번 수업에 적용한 학습 활동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 ①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 ②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 ③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 ④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이유 :

5. 이번 수업이 기존의 시 수업보다 흥미로웠나?

- ① 그렇다
- ② 보통이다.
- ③ 아니다.

6. 이미지 교육을 통한 시 수업이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

- ① 그렇다
- ② 보통이다.
- ③ 아니다.

7. 회화를 통한 시 수업은 어떠했나?

- ① 재미있다.
- ② 보통이다.
- ③ 재미없다.

이유 :

8. 회화가 아닌 다른 매체를 적용한 현대시 이미지 수업은 어떤 것이 좋

을까?

- ① 음악
- ② 만화
- ③ 조형물
- ④ 무용
- ⑤ 광고
- ⑥ 드라마/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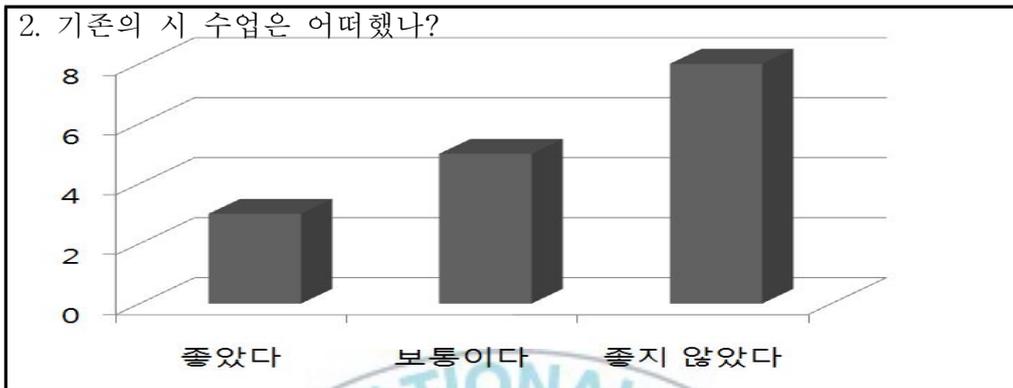
<표 19> 수업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지

위 설문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그려 수업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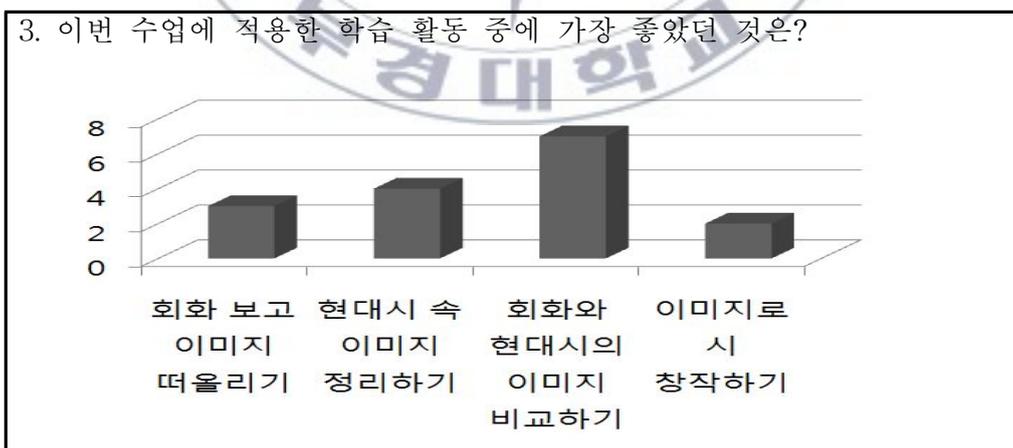
<표 20> 설문조사 1번

평소 학생이 문학 중에서 좋아하는 장르로 소설 7명, 희곡/시나리오 4명, 수필 3명, 시 2명 순으로 시보다는 소설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학습자에게 책이나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서사적 구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 희곡/시나리오보다는 시가 더 낯설게 느껴진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나 시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1> 설문조사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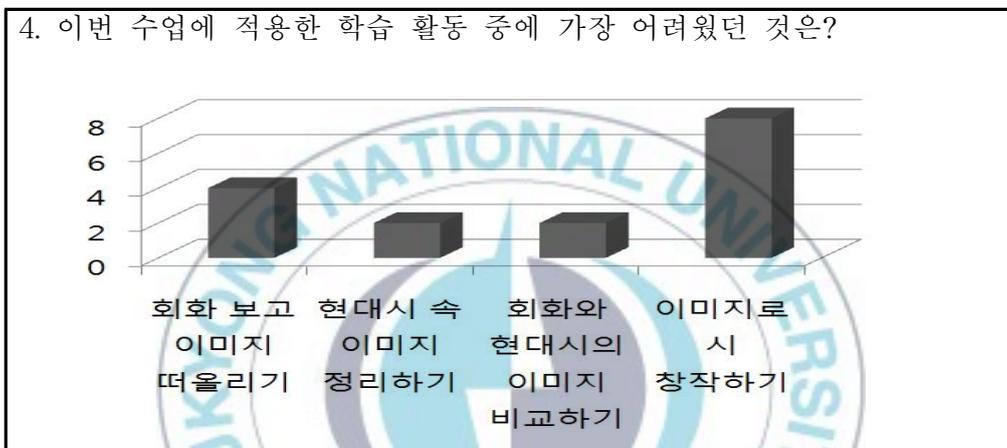
기존의 시 수업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8명, 보통이다 5명, 좋았다 3명으로 절반의 학생이 시 수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유는 <표 21>의 설문조사 1번처럼 좋지 않았다 이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학생은 시보다는 다른 문학 장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표 22> 설문조사 3번

이번 수업에 학습 활동을 통하여 적용해 본 방법론에 대해서는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7명,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4명,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3명,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2명 순으로 응답했다.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를 선택한 학생들은 회화, 현대시를 한 장르로써 국한시켜 분석하는 것보다 같이 접목했을 때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를 둘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했다.



<표 23> 설문조사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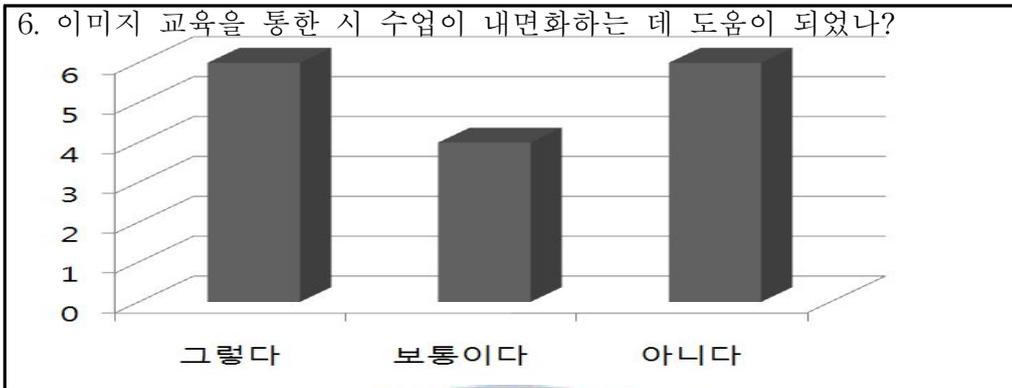
반면, 이번 학습 활동에 나타난 네 가지 방법론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 8명,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4명,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와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가 각 2명으로 응답했다.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를 답변한 학생들은 평소 시 수업 시간에 시 창작 수업이 많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했다, 다른 학습 활동에 비해 시간이 걸리는 창작 자체에 대해 부담된다는 의견이었다. 그 다음으로 회화를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또한 평소에 접하지 못한 회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했다. 이 두 활동은 실제 현장이나 실생활에서 해보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방법을 수업에 계속 적용해 본다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그림을 그리

는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글을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이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요된 그림 그리기가 되거나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없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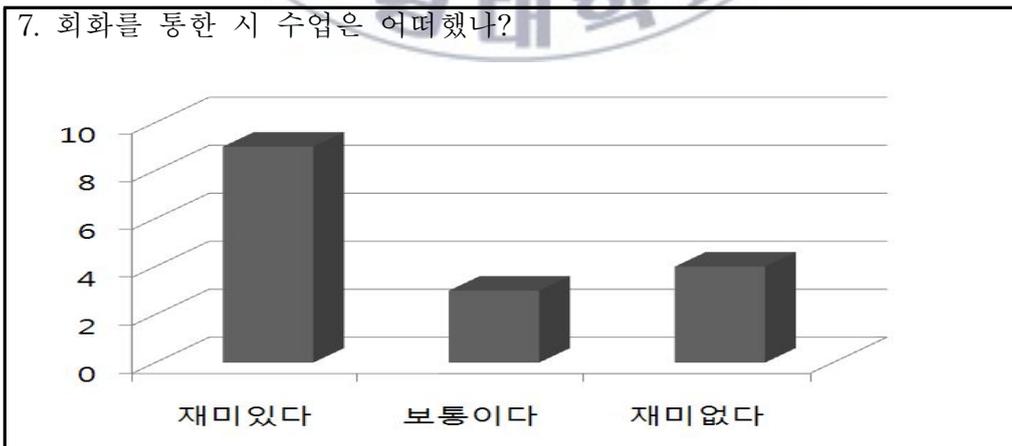
<표 24> 설문조사 5번

회화를 통한 현대시 이미지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그렇다 10명, 보통이다 4명, 아니다 2명으로 대다수 이상이 흥미를 느꼈다. 다양한 매체 속에 살고 있는 요즘의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 수업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표 25> 설문조사 6번

시 수업의 최종 목표인 내면화에 대한 효과는 그렇다, 아니다가 각 6명, 보통이다 4명이다. 이렇듯 상반된 의견으로 내면화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은 이번 수업이 현대시 전반에 대한 교육보다는 이미지 교육에 더 초점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시의 구성 요소인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흥미는 생겼지만, 내면화에 대한 효과 여부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확실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표 26> 설문조사 7번

회화를 통한 시 수업에 대한 흥미는 재미있다 9명, 재미없다 4명, 보통이다 3명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다는 의견의 학생들은 평소 시 장르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통해 수업을 들으니 이해가 훨씬 잘 되었다, 시라는 문학 장르와 회화라는 미술 장르가 서로 이미지라는 속성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재미없다는 의견은 회화보다는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른 장르를 통한 수업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표 27> 설문조사 8번

현대시 이미지 수업을 회화를 제외해서 적용하고 싶은 매체에 대해서는 만화와 광고가 4명, 드라마/영화 3명, 조형물과 무용 2명, 음악 1명으로 응답했다. 특히 만화, 광고, 드라마/영화를 응답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가 있어서 시 수업에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이번 수업을 통하여 앞으로 문학이 회화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와 연관한 열린 수업을 고민할 수 있었다.

V. 결론

기존의 문학 교육은 지식 습득을 통한 감상 방법을 터득하는데 의존하고 있었다. 시 교육에서도 오랫동안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다가 7차 교육과정에 이르면서 변모하기 시작했다. 시적 화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를 즐기고, 내면화된 것을 창작물로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교육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이미지 교육은 최근에 거론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매체와 연결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색채와 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회화와 이미지를 연관시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에서 이 방법의 바탕을 두었던 이현희의 문학 교수·학습 모형은 그림 선정 단계, 그림 읽어내기 단계, 이야기 쓰기 단계, 비교하기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본고에서 부합할 목표에 맞지 않은 단계의 순서, 현대시만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회화 보고 이미지 떠올리기, 현대시 속 이미지 정리하기, 회화와 현대시의 이미지 비교하기, 이미지로 시 창작하기의 방법을 제시했다. 네 가지 방법은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해 학습 지도안을 구성했다. 그리하여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각 2차시로 수업했다.

수업한 결과는 학생들이 쓴 학습 활동의 예시와 학생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학습 활동의 경우 학습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이지만 교사의 세밀한 지도와 2인 1팀으로 한 덕분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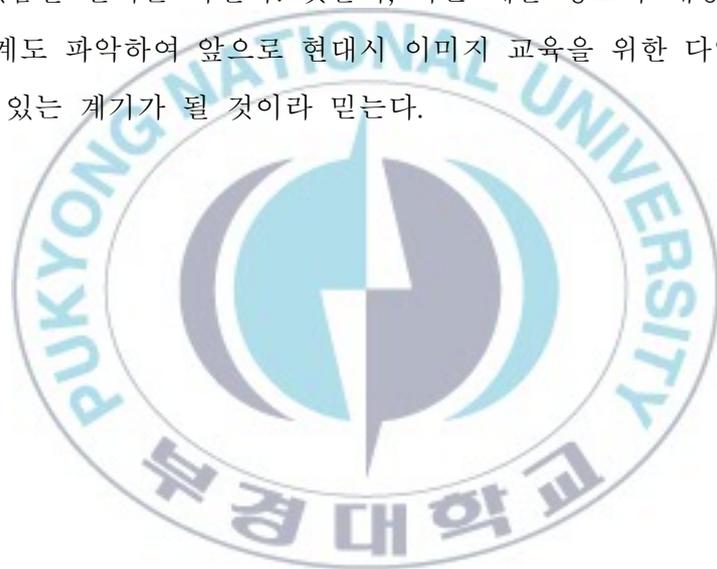
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다수의 학생이 수업의 흥미도 및 회화를 통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들은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회화 자체의 거부감이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순간적인 대중 매체 속에서 일종의 교양을 쌓는 듯 하다 회화가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화는 대중 매체나 단순한 그림과는 달리 사고력과 관찰력을 요하는 매체이다. 또한 회화에서 느껴지는 색채가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회화나 어려워하는 작품에도 친숙해지는 교육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 창작이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 자체를 익혀 스스로 시를 분석하고 창작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 특히 시 창작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시간 안에 시 창작을 할애하는 시간은 없거나 미비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시 작품을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내면화했고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 창작이다. 따라서 시 창작에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써의 창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림을 그리기를 거리는 경우이다. 문학과 같은 국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거나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한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쉽게 현대시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은 시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림보다는 글을 쓰는 것이 편한 사람, 그림 그리기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 수업 방법이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강요받는 느낌을 주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좀 더 이미지를 이해하기 쉬운 수단임을 설명해,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현대시 속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혹, 그림 그리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콩트나 다른 장르로 표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세 가지 문제점을 잘 개선한다면 교사가 아닌 학생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본고가 학생과 교사에게 주위의 많은 매체와 현대시 교육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속에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덧붙여, 다른 예술 장르나 대중 매체와 이미지의 관계도 파악하여 앞으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2 국어』 (교육부 고시 1997-15호), 2001.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2000.
- 김병택, 『현대시의 예술 수용』, 새미, 2009.
- 김은전 외,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3.
- 김재홍, 『문학개론』, 현대문학, 2007.
-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려대 출판부, 1998.
- 김지선, 『김춘수 부단한 시적 실험의 도정과 무의미시』, 클누림, 2010.
- 노 철, 『시 연구방법과 시교육론』, 보고사, 2003.
-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 교육론』, 역락, 2003.
- 윤석산, 『현대시학』, 문학시대사, 1996.
- 윤여탁,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 윤호병, 『문학과 그림 비교 - 현대시에 반영된 그림의 영향과 수용』, 이종문화사, 2007.
- 이성우, 『0/1 세계에서 시란 무엇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재승,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수업 방법 19가지]』, 교학사, 2005.

- 임기대, 『시각이미지의 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조용훈, 『문학 기호학으로 읽는 문학과 그림』, 효형출판, 2004.
- 현대문학사편, 『시론』, 현대문학, 1989.
- Henry H. H Remak, 이혜순 역, 『비교문학』, 중앙출판, 1980.
- Marshall McLuhan, 박성규 역,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1.
- Regis Debray, 정진국 역, 『이미지의 삶과 죽음』, 글항아리, 2011.
- Roland Barthes, 김인식 역, 『이미지와 글쓰기-롤랑 바르트의 이미지론』, 세계사, 2005.
- T. E. Hulme 외, 윤지관 역, 『20세기 문학비평』, 까치, 1984.
- Umberto Eco, 김주환 역,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1994.

2. 학위논문

- 강경순, 「창의적 사고를 통한 시 교육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강은선,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 교육 방법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미로, 「무의미시에 대한 교육적 고찰」,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07.
- 김병규,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회화 학습에 관한 연구 : 서양화를 중심으로」,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유미, 「함형수 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주향, 「시 교육 방법 연구 - 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지영,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 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2004.
- 김현아, 「회화적 상상 활동을 통한 문학 상상력 교육 연구」,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화선, 「시 교수 학습의 개선 방안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손혜진, 「이미지 중심의 시 교육 방안」,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오형엽, 「김춘수 시의 기법 연구」, 『논문집 제24집』, 수원대학교 출판부, 2006.
- 이현희, 「미술을 연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혜영, 「시의 이미지 교육 방법 연구 : 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미향, 「프랑스의 국어 교과서 연구 : 단원 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정숙, 「미술치료의 관점에서 본 Munch의 작품세계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정순, 「시적 형상성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한지혜, 「시 교육에서의 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황경혜,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03.
- 황세경, 「미술치료를 위한 작품연구 :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